

“권력기관 정치중립 법·제도로 완성”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
과기장관 등 6명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과 관련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등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하지 못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직접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되던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현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개혁 의지와 역량을 입증한 조 장관이 적임자이고, 그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분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다음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

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판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1’과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을 가1으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2 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

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정찬주 장편소설 ‘광주 아리랑’ 연재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8주년 기념
5·18 민중의 시각으로 그려
삽화는 이정기 작가

광주일보는 내년 광주5·18민주화운동 40주년 및 창사 68주년을 기념해 정찬주 작가의 장편소설 ‘광주 아리랑’을 연재합니다.

이번 추석 특집부터 매주 1회 연재하는 ‘광주 아리랑’은 1980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당시 상황을 시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시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광주민중항쟁에 가담했던 대학생·간부와 교수, 종교인 등은 80년

알립니다



정찬주 작가

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조명돼 왔던 터라, 이번에는 근로자와 빈민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등장인물은 읍니버스 형식으로 형성화하는 이번 작품은 기존의 팩트를 토대로 하되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역동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삽화는 이정기 작가가 맡아 매회 드라마틱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수능 응시자 광주 1만8563명·전남 1만5993명 지난해보다 3500여명 줄었다

전국에선 4만6190명 줄어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예정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광주·전남지역 지원자가 35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0면> 9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광주지역 지원자는 지난해 2만3500명보다 1787명(8.8%) 줄어든 1만8563명이었다.

재학생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19년 줄어든 1만4605명(78.7%)을 기록한 반면, 졸업생은 182명 증가한 3504명(1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0명 늘어난 454명(2.4%)이었다. 수험 영역은 가형 5864명(31.6%), 나형 1만2335명(66.5%) 등 나형 선택이 2배를 넘었다.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9196명(49.5%), 과학탐구 8747명(47.1%), 직업탐구 241명(1.3%) 등이었다.

사회 탐구 ‘생활과 윤리’(32.7%), 과학탐구 ‘생명과학 I’(36.9%), 제2외국어 ‘아랍어 I’(72.7%) 등 선택과목 활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도 1만599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1737명(9.8%) 감소했다. 재학생은 1891명 감소한 1만3758명(86.0%), 졸업생은 130명 증가한 1957

명(12.2%),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4명 증가한 278명(1.7%)이 지원했다. 수험 영역 지원자 중 가형 선택자는 4984명(31.2%), 나형은 1만513명(46.7%)이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7406명(46.3%), 과학탐구 7538명(47.1%), 직업탐구 234명(1.5%)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4만6190명 줄어든 54만8734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은 5만4087명 감소한 39만4024명(71.8%)이 지원했고,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는 각각 6789명, 1108명 늘어난 1만2271명(25.9%), 1만2439명(2.3%)으로 집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학교급식소 음식쓰레기 대란 ▶6면
굿모닝 예향 - 완도 한바퀴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추천여행 개천절 10월 3일(목) 무안공항-대만여행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개천절 연휴 특별기	중국·마카오			동남아·대만		
<p>개천절 연휴 특별기</p> <p>10월 3일 단 1회 찬스!</p> <p>하나팩 ATPF02_A 대만·지우펀·스펀 4일 1,049,000원~</p> <p>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편안한 중화항공 #101타워 #4성급 호텔</p>	<p>백두산</p> <p>하나팩 CNPF2_A 연갈백두산 4일, 5일 49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 8.24M티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전지감상</p>	<p>상해</p> <p>하나팩 CCPF01 상해·주가가 4일, 5일 32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중공특구 #상해서커스</p>	<p>마카오/홍콩</p> <p>하나팩 CCPF05 홍콩/마카오 4일 699,000원~</p> <p>주 1-2회 운항 • 일가별성이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홍콩1박+마카오1박 #물속일광</p>	<p>다낭</p> <p>하나팩 AVPF13_0 다낭·호이안 4일 593,000원~</p> <p>매일운항 3박4일 • 8박9일박음이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p>	<p>세부</p> <p>하나팩 APPF01_A 세부 5일_일금리조트 494,000원~</p> <p>주 4-6회 운항 • 일가별성이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핑투어 #편안사저</p>	<p>방콕</p> <p>하나팩 AAPF01_X 방콕·파타야 5일, 6일 475,000원~</p> <p>수목 3박4일, 토/수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요트투어 #스펙타클 칸쇼</p>
<p>상해/장가계</p> <p>하나팩 CCPF02 상해·장가계 4일, 5일 1,24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천하제일담 #5성급호텔</p>	<p>상해/황산</p> <p>하나팩 CCPF05_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은근여행 #서포터즈</p>	<p>상해/계림</p> <p>하나팩 CCPF05_W 상해/계림 4일, 5일 1,19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강요양원 #서포터즈</p>	<p>코타키나발루</p> <p>하나팩 AMPF02_1 코타키나발루 5일, 6일_일금리조트 549,000원~</p> <p>수목 3박4일, 토/수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아일랜드 투어 #니티투어</p>	<p>대만</p> <p>하나팩 ATPF15_Z 대만·지우펀·스펀 4일 490,000원~</p> <p>주 4-7회 운항 • 일가별성이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오일만해 여행 #서포터즈</p>	<p>상해/캄보디아</p> <p>하나팩 APPF10 상해·캄보디아 4일, 5일 999,000원~</p> <p>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천안리의향 #프랑스로망</p>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도스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여행상품 가격]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료에 불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경비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무구) 서울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실 이상 2인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정책/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